



■제주도립미술관 새해 여는 기증작품 특별전 셋

제주를 대표하는 공립미술관인 제주도립미술관이 전관을 활용해 1월 25일부터 세 개의 전시를 나란히 열고 있다. '홍종명: 내면의 형상화' (기획전시실 1), '홍성석: 인간의 절망을 표현하다' (기획전시실 2), '바다의 역군' (장리석 기념관, 시민갤러리)이 그것이다.

작고 작가인 이들의 전시는 유족 등이 도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하면서 기획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홍종명 특별전은 유족이 기증한 작품 26점 중 22점이 출발점이 되었다. 홍성석 특별전은 사후 서울의 작업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국적으로 '생환'한 21점의 기증

작품이 바탕이 되었다. '바다의 역군'은 한국수출입은행이 미술품 사회 환원을 위해 도립미술관에 기증한 세로 200cm, 가로 499cm인 동명의 대작을 중심으로 꾸몄다. 제주 관련 작품 기증이 제주미술사 연구로 이어지고 제주 미술을 한층 풍성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립미술관의 2022년 첫걸음에 무게가 실린다.

지금까지 도립미술관에 기증된 작품은 총 373점. 지난해에만 51점이 도립미술관에 기증됐다. 미술관은 이번 기획전에 맞춰 25~26일 기증자별로 3건의 기증식도 잇따라 진행한다.

100주년... 실향 딛고 추상·구상 오간 여정

① '홍종명: 내면의 형상화' 피난 화가로 제주에 체류 '제주도 사라봉' 등 남거 국전 작가 면모 등 담아

홍종명(1922~2004)은 올해 탄생 100주년이 되는 화가다. '홍종명: 내면의 형상화'는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고 '피난 화가'인 홍종명과 제주의 인연을 들여다본 전시다.

평양 출신인 홍종명은 일본 데이코쿠미술학교(현 무사시노미술대학)에서 유학했다. 1·4후퇴 때 서울과 부산을 거쳐 제주에 도착한 그는 피난 생활 시기 목지가의 도움으로 '미술사'라는 작은 화방을 개설했고 오현중고등학교 미술교사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제주 피난시절에 그린 대표작으로 '자화상' (1953), '제주도 사라봉' (1953)이 있다.

이 전시에는 '초춘 맞는 언덕', '과수원집 딸', '옛 동산에 오르면' 등 195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 작품 50

여 점을 선별했다. 1957년 제6회 대한민국미술전람회(국전)에서 처음 입선한 이래 65년 특선, 66년 문교부장관상, 67~68년 연달아 특선을 받았던 홍종명은 한국 현대미술의 추상과 구상 양쪽 모두를 오갔던 작가다. "실향민으로서 회복하지 못할 상실을 그림에 담았고, 한국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대적 요청에 따라 전통을 소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홍종명의 제자들'이란 이름 아래 제주 강태석(1938~1976), 김택화(1940~2006), 현승복(1933~2011)과



홍종명의 '과수원집 딸' (1978)

서울 제자 김용철(1949~)의 작품 12점도 함께 전시했다. 특별전은 4월 17일까지 계속된다.



홍성석의 '넋풀이 9301' (1993)

웅크린 인체에서 꿈꾸는 탐라별곡까지

② '홍성석: 인간의 절망...' "상실감과 절망 탐구한 작가" 네 시기 구분 작품 세계 살펴

홍성석(1960~2014)은 1993년 '넋풀이 9301'로 제주도미술대전 대상을 받았고 개인전과 각종 초대전 등에 참여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작가다. 한때 오현중학교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네 개의 시기로 구분해 홍성석의 작품 세계를 살피고 있다. '인체' 시리즈를 집중적으로 선보인 1987~1992년, 작은 알의 형상을 배치해 물질문명에 파괴되는 인간성과 새 생명의 탄생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동시에 드러내는 1992~1994년,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불안과 초조 등을 나타낸 작업이 잇따르는 2000~2007년, 제

주 신화와 풍광을 소재로 창작한 '탐라별곡' 시리즈 등을 내놓은 2007~2014년으로 나눴다.

제주도립미술관은 홍성석의 작품 세계 전체를 관통하는 것은 "생명성의 추구"라며 고인을 "개인의 정체성과 현대문명 속에서 정신적인 상실감과 절망에 관한 이야기를 탐구했던 작가"로 소개했다. 전시는 4월 17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해녀·바다 총체적으로 표현한 대작

③ 장리석의 '바다의 역군'

6·25전쟁 시기인 1951~54년 제주에 머물며 해녀, 말 등 이 섬의 풍광을 담은 그림을 그렸던 장리석

(1916~2019), 장리석기념관에 공개한 유화 '바다의 역군' (1985)은 장리석이 작업의 주요 소재로 삼았던 해녀와 바다를 총체적으로 개괄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

다. '해녀들' (1974), '남해의 여인' (1975), '차돌 어망' (1985) 등 연작에 등장하는 해녀의 다양한 형상이 제주 고유 향토색을 품은 채 또 다른 모습으로 드러난다. 80년대 장리석 작품을 종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대표작으로 바다와 해녀에 대한 표현과 변화 과정

을 살필 수 있다.

시민갤러리에서는 '장리석 초상과 작업실'이란 제목으로 장리석의 대한민국미술전람회 수상작과 함께 변순철 작가가 기록한 초상사진을 전시 중이다. 두 전시는 10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전선회기자 sunny@ihalla.com

고재만의

제주어기림관

<287>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만그림글자 응용>

맹이 골맨. "가나귀털이 모다드난 헛간 스방이 붙아졌젠헛명양?"
즈네 풀았저, "기여계, 그것만 아니고 비 님름도 그 첫젠."
하르바지 골맨. "오게, 경헛였저. 경헛국 뚫뚫한 기운이 하영 이신
여즈 아으 앞더렌 더 붙아지명 젓인 옷도 반짝헛게 들랏주.
그딘 뱃이 잘 들어완 경헛거주게. 헛름시난 가나귀 혼 무리가
입에 무신 것산디 물언 완 여즈 아으신디 천게. 여즈 아은
그걸 발안 님려보단 아픈 발에 붙연 옷고름 젓인 님근헛게
차메명 가나귀 신디 고걸 꺾아미명 고맙덴 헛였저."

* 제주어 풀이

* 붙아졌젠헛명양? : 밝아졌다고요? * 님름도 그 첫젠 : 바람도 그쳤다고
* 붙아지명 : 밝아지면서.
* 반짝한다(반짝한다, 편짝한다의 여린말) : <그림> 텅텅 빈 상태가 되다. 거리낄
것 없이 깨끗하다. 일을 했음에도 얻음이 전혀 없다.
* 반짝헛게 들랏주 : 깨끗하게 말랐지. * 뱃이 잘 들어완 : 별이 잘 들어와서.
* 무신 것산디 물언 완 : 무엇인지 물어와서. * 아으신디 천게 : 아이에게 왔어.
* 그걸 발안 님려보단 : 그것을 받아서 보다가.
* 발에 붙연 : 발에 붙이고. * 님근헛게 차메명 : 단단하게 차메면서.
* 고걸 꺾아미명 : 고개를 끄덕이면서.

고재만 화백

제주어상담실 이용자 21%는 '도외'

제주학연구센터 상담 자료집 단어 문의, 40대 이용자 최다

지난해 제주어종합상담실 이용자 열 명 중 두 명은 도외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많았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21년도 제주어종합상담실 상담 자료집 '님름도레기'가 바람개비렌을 펴냈다.

이번 자료집에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상담한 자료 321건이 실렸다. 이를 단어, 구와 문장, 뜻풀이, 표기, 어원과 지명, 문법과 발음, 기타 등 7개 분야로 나눠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상담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단어 관련 99건(31%), 구와 문장 89건(28%), 뜻풀이 관련 31건(10%), 표기 관련 59건(18%), 어원과 지명 8건(2%), 문법과 발음 15건(5%)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제주 236명(73%), 도외 거주자 66명(21%)으로 집계됐다. 연령대는 40대가 94명(29%)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20대 92명(28%), 30대 58명(18%), 50대 42명(13%), 60대 15명(5%)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192명(60%)으로 남성(119명, 37%)보다 많았다.

제주어종합상담실은 제3차 제주어 발전 기본 계획에 따라 설치된 제주어 전문 상담 창구다. 전선회기자

축 훈
CONGRATULATIONS
녹조근정훈장



홍 충 효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녹조근정훈장 수훈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9기 구좌읍주민자치위원회(구주회) 위원 일동

축 상
CONGRATULATIONS
2021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축산업발전 공로대상」



강 승 호
(제주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대한민국신문기자협회, 언론인연합협회 등이 주관, 수여하는 '2021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축산업발전 공로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상도리 일가

축 상
CONGRATULATIONS
국무총리표창



정 태 수

국무총리표창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27회 동창회 회장 김 경 범 외 회원일동

한라일보가 제주의 대표 신문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섰습니다.

한라일보가 大勢 다!

결혼·부고·축하광고 도내 최다 게재
제주도내 최고의 신문광고 효과!

문화체육관광부·한국언론진흥재단 2021신문집지 이용조사
열독률·유료구독률 제주도내 1위

2022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대상사 선정
2005년부터 16회, 제주지역 '최다 선정'

도내 언론사 최초 '매일' 품질인증 01
미래창조과학부 / 2016년 발표

제주지역신문 신뢰도 1위 02
리얼미터 / 2015년 발표

제주지역 유료판매부수 1위 03
한국ABC협회 / 2016~2021년

제주지역 발행부수 1위 04
한국ABC협회 / 2020~2021년 발표

광고 750-2830 · 구독 750-2330 · 서귀지사 732-5552